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자

지역연구를 수행하다가 보면 항상 느끼는 점은 지역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에서는 2001년 3월 1일 현재 409종에 달하는 방대한 통계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청 홈페이지에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통해 국내외 주요통계 530만 계열을 수록하고 있어 필자와 같이 실증분석을 주로 하는 경제학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에서는 지역에 관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자료는 제공해 주고 있지만 부문적이고 미시적인 자료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 위치한 통계청 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자료들은 연속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통계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은 국가 및 지역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면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연구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하부구조이다. 사회간접시설이 소수의 수요자에 의해 그 사용이 독점될 수 없는 공공재(public goods)이듯이 통계정보도 중요한 공공재이다. 따라서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지역연구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면, 필자는 경기변동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국가별 경기변동이나 산업별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행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별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도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필자가 연구를 수행하려고 해도 지역통계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3-4년만 더 축적되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지역연구는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준 높은 지역연구가 가능해 진다.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일은 연구자별로 중복되는 낭비적인 일이다.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연구자는 모형설정과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등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정책의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면 좋은 연구결과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올바른 정책이란 현실적인 증거(실증)가 뒷받침이 된 효율적인 정책을 말하는데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현실적인 증거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역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 통계청 제주사무소,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유관기관들이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